

전북대-남원시, 남원캠퍼스 구축 '맞손'

남원 전략산업 전문인력양성 위한 계약학과 설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가정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1일 오후 4시 30분 전북대 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이환주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캠퍼스 구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남원시는 남원캠퍼스 구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본격 돌입하고, 남원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에 설치되는 전북대 계약학과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게 화장품과 목칠공예 분야로 설정됐다. 양 기관은 2021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지역산업학과에 화장품뷰티학 전공과 목칠공예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와 남원시는 양 기관 실무팀을 구성해 내년까지 계약학과 학사과정 개설을 위한 교육환경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9월부터 신입생 모집을 위한 공고와

신입생 등록관리 등을 할 예정이다.

이어 2021학년도에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을 통해 남원시를 평생학습도시의 학습공동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지역민을 재교육하는 것은 대학과 지역이 따뜻하게 동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남원의 전략산업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전북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가 전북도 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1일 학부생들의 공공부문 법조 인력 양성 및 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로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늘부터 원서접수 시작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원서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군산 거주 / 전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 경우 또는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전주 거주 / 무주 소재 고등학교),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임실, 순창, 장수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수능 원서접수 시 지원자는 응시수수료,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접수하고, 시각장애·청각장애·뇌병변 및 운동장애 등 시험편의 제공대상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하여 접수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2만156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2만 여명이 응시원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시험지구별 원서접수 관련 문의는 전주 270-6081, 군산 450-2641, 익산 850-8831, 정읍 530-3020, 남원 620-7831, 김제 540-2571.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가 지난 20일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1차 년도 프로그램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전체 교직원 워크숍' 개최 및 '호원미래혁신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혁신추진 기반 구축

호원대, 호원미래혁신연구위원회 발족 비전설계팀 등 4팀 체제 · 연구위원 38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0일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1차 년도 프로그램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전체 교직원 워크숍' 개최 및 '호원미래혁신연구위원회(이하 호미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호원미래혁신연구위원회는 기존 호원기획연구위원회를 개편해 임무·기능·편성을 비롯해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특히 혁신연구위원회는 △비전설계팀 △대학혁신팀 △혁신추진팀 △지식네트워크팀 등의 4팀 체제로 운영되며, 교수·교직원으로 구성

된 38명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편성됐다.

혁신연구위원회에서는 대학의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융합해 대학의 성격과 방향을 혁신할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워크숍 운영, 교수 및 교직원의 혁신성 평가, 빅데이터 무·기능·편성을 비롯해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연구결과는 △호원대혁신단 △호원대혁신사업 결과보고서 △호원대 중장기 비전서 등으로 발간된

다. 이는 대학의 혁신위원회 인터넷과 홈페이지에서 공유된다.

호원대는 혁신연구위원회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호원대의 정책수립 기초를 세우며 연구결과 토론을 활성화해 혁신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대학이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혁신연구위원회가 매진해 달라"며, "10년, 20년 후 호원대의 비전을 설계하고 혁신담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며 미래 호원대의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이 '미래사회와 대학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로펌 찾아 법조 분야 체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와 공동으로 21일 학부생들의 공공부문 법조 인력 양성 및 실무경험 습득을 위한 로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공공인재학부 재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험에는 최낙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건 변호사 등과 함께 하는 전주지방법원 재판 방청, 로펌 체험(법률사무소 한서), 그룹별 변호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그룹별 변호사 특강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변호사들과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 준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사전에 논의해 프로그램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 특강에서는 참신하고 시의성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오는 11월에 예정된 로스쿨 진학 입시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러한 다양한 법조 현장 체험 등을 통해 공공인재학부는 최근 3년간 15명의 로스쿨 진학자를 배출하는 등 '법조3현의 고장' 전북의 미래 법조인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기연 학생은 "전주지방법원은 1학년 때 견학해 왔지만 법률사무소 방문,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처음 경험했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단순한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장래희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로펌체험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일정을 수료한 학생들 전원에게는 공공인재 학부장과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장 공동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를 수여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실종자 수색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실종자 수색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법규, 안전교육, 비행이론, 이·착륙 조작, 공중조작, 사진촬영, 동영상 편집 컴퓨터 작업 등으로 구성된 이번 드론 조종사 양성과정은 19~21일까지 진안경찰서 및 진안 지역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은 교령 인구조로 실종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야산, 수풀이 우거진 산악지역이 많아 골든타임 내 실종자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진안경찰서의 요청으로 실시했다.

2018년 진안군 실종자 발생건수는 36건으로 이를 수색하기 위해 동원인

원 60명, 드론 3대, 경찰헬기 1대, 경찰 수색견 3마리 등이 투입됐다.

진안경찰서는 "이번 교육을 통한 드론 조종사 양성으로 실종사건 발생 시 드론을 통한 현장촬영으로 수색범위 설정 등 세밀한 수색 수행이 가능해 수색 인력 동원 및 현장 조사 부담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비전대학교는 진안경찰서, (주)아산과 지난 6월 18일 '실종자 수색·드론 조종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를 통해 진안경찰서의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